

북한개발소식

2025 NOV

11

통권 241호

이달의 주제

국제관계의 변화 속 북한의
전략과 향후 전망

북한을 위한 기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외

북한뉴스

북, 당 창건 80주년 기념 행사 진행...
새 ICBM 화성-20형 첫 공개 외



한국 오픈도어 북한선교연구소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국제관계의 변화 속 북한의 전략과 향후 전망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CONTENTS 2025 NOV

이달의 주제 :

국제관계의 변화 속 북한의 전략과 향후 전망

- 권두칼럼 01** 국제관계의 변화 속 북한의 전략과 향후 전망
- 칼럼_1 10** 임을출_ 중국 전승절 및 당창건 80주년 기념행사 함의와 향후 행보 전망
- 칼럼_2 16** 양운철_ 북·중·러 지도자의 천안문 망루 회동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칼럼_3 22** 강채연_ 누가 2025 동북아 권력균형의 새로운 설계자인가?
- 인터뷰 30** 편집부_ “복음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중) - 인천한나라은혜교회 김권능 목사
- 서평 34** 북한경제는 죽지 않았습니다만
- 북한뉴스 36** 북, 당 창건 80주년 기념 행사 진행... 새 ICBM 화성-20형 첫 공개 외
- 북한 기도 제목 39**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외



2025년 9월 3일, 중국은 전승절 80주년을 맞아 대규모 열병식을 열었다. 이 열병식에 참석한 각국 귀빈들 중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것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하 호칭 생략)이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옆자리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선 그의 모습은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김정은은 행사 이후에도 러시아, 중국과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북한의 전략적인 위치를 과시했다.



북한은 전승절 이후 약 한 달 만인 10월 10일에 열린 북한의 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을 통해서도 국제무대에서의 높아진 위상을 과시했다. 이 행사에는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라오스, 니카라과, 멕시코, 적도기니, 브라질, 이란, 베네수엘라, 인도네시아 등 총 11개국 외빈이 참석하였는데, 이는 과거 70주년 행사 때의 두 배 수준이다. 특히 중러 서열 2위인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그리고 베트남과 라오스의 최고 지도자(또 럽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통론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등 각 국의 최고위층 인사들이 함께 주석단에 오름으로써 북한의 외교력을 과시했다.

이번 전승절 열병식은 북중러 3국 정상이 함께 열병식을 참관하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3국 협력을 가시적으로 상징하는 행사가 되었다. 이번 전승절 행

사 이전에도 북중러 간의 협력과 진영 외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북중러 3국 정상은 한 자리에서 연대를 과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 중심 연대에 대응하는 3국 연대의 출범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으며, 한중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대립 구도의 형성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번 전승절을 통해 보여진 국제무대에서의 북한의 높아진 위상, 그리고 북한의 외교 전략은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물리적으로 대부분의 북한 사역이 북한의 인접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생각할 때, 북한의 대외 전략과 주변국과의 관계는 선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 글에서는 최근 동아시아 정세와 북한 전략과 행보, 그리고 그 시사점에 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높아진 북한의 전략적 위상

이번 전승절에서 중국이 보여준 김정은에 대한 예우는 현재 북한이 가진 전략적 위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이 제 5차, 6차 핵실험을 이어가고 이에 대응한 강력한 대북제재가 가해지기 시작하면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버티기 모드로 들어갈 당시 많은 이들이 시간은 북한의 편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 북한으로서는 외부로부터의 상당한 물자 수입이 필수적이지만, 대북 제재로 인해 외화벌이 창구가 매우 제한된 상황이다 보니 북한의 외환 보유고는 감소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막대한 핵무기 개발 및 유지비용까지 생각한다면 북한 경제가 장기간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었다.

그렇지만 상황은 급변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이제 러시아라는 우방을 통해 식량이나 유류, 군사 기술 등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수의 노동력을 수출할 길도 열렸다. 이런 가운데 이번 전승절을 계기로 중국과도 원활한 관계를 복원하였다.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북한은 양국 간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무역 협력을 가속화해 더 많은 성과를 거두기를 원한다”고 직접 발언한데서 보듯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은 경제 문제의 해결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되었다.¹⁾

1) “백격대던 북중관계 완전 복원…김정은 ‘안러경중’ 행했다”, 중앙일보, (2025.09.05.), <<https://www.joong-gang.co.kr/article/25364521>><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4521>

이렇게 중국과 러시아를 든든한 뒷배로 두게 되면서 북한은 한층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먼저 국제사회로부터의 추가적인 압박의 위협이 사라졌다. 중국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비롯한 국제적 합의를 여전히 일정 부분 준수하는 모양은 보이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대북 제재에 대한 완화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의 활동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노골적으로 북한의 편을 들고 있다. 또한 북한은 제재 해제와 서방세계로부터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중러를 통해 어느 정도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정세 변화는 북한에게 꼭 미국에게 목매지 않더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강조하는 다극화된 국제 질서에 편승함으로써 체제를 잘 유지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더해준 듯하다. 과거에는 미국으로부터의 안보 보장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었다면, 이제는 핵 보유와 우방국과의 연대를 통해 군사와 경제 모두 챙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도 서두르지 않고 자신의 강해진 전략적 위치를 활용하고자 할 것으로 예상된다.²⁾

신냉전 대립 구도와 북한의 전략

“수십 년 만에 가장 강한 위치에 있다”고 평가될 정도로 북한의 전략적 위상이 상승한 데에는 북중러-한미일 간 갈등 구도의 심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사실 기존에는 중국과 러시아 모두 북한의 핵개발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북중, 북러 관계가 그리 원활하지 못하거나 소원했던 시기도 있었다. 현재의 3국 협력과 그 속에서 강화된 북한의 입지는 결국 러우 전쟁으로 서방 세계와 대립하게 된 러시아와, 미중 갈등 심화 등에 따른 중국의 입장 속에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상승한 데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북한도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에 북한은 동아시아 정세를 ‘신냉전 구도’로 규정지며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2021년 9월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은 현 국제관계 구도가 ‘신냉전’으로 변화하였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2022년 연말 개최된 당 중앙위 제8기 6차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국제관계구도가 신냉전으로 명

2) 美전문가 “北 협상력 훨씬 강해져…북미대화 낙관론 경계해야”, 연합뉴스 (2025.10.18.), <<https://www.yna.co.kr/view/AKR20251018001100071>>



백하게 전환되고, 다극화의 흐름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신냉전적 대립 구도를 강조하는 이면에는 국제 정세의 긴장을 통해 자신들의 핵보유의 정당화하고,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서 국제무대에서 강대국들과 대등한 관계로 향상시키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평가된다.³⁾ 북한은 신냉전 구도가 자신에게 유리한 정세라고

판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고자 하였다.

북중러와 한중일이 마주하는 한반도에 대립과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길 바라는 북한은 그 전략적 타깃으로 한국을 지목하고 있다. 지리적인 거리로 보나 향후 대화의 필요성으로 보나 미국을 위협으로 강조하기 보다는 한국을 적국으로 포지셔닝 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이기동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중러 연대+α를 베이스캠프로 삼아 생존과 발전을 모색하려는 북한의 전략적 의도가 관철되기 위해서는 한미일과 북중러가 마주치는 지역인 한반도에서 일정한 적대관계(적대성) 유지와 남한과의 전략적 관계 단절(2국가)이 필요”하다고 분석하며, 북한의 적대적 2국가는 이러한 전략적 차원에서 나온 것이므로 남북관계 단절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⁴⁾ 이런 맥락에서 북한은 한국의 대응과는 별개로 자신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당분간 남북 교류나 평화, 통일에 관련하여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 확실시 된다.

북중러 3국 협력의 한계

이러한 북한의 전략에 빈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일견 견고해 보이는 3국의 협력이지만 냉전시대 동맹과는 다르게 이해관계에 따른 거래적, 기능적 협력에 가까운 협력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겉으로 보여지는 견고함과는 달리 상호 간 불신 및 우선순위의 괴리 등 국가 간 미묘한 입장 차이도 관찰된다.

먼저 최근 혈맹에 준하는 관계로 밀착을 과시해 온 북러 관계의 경우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한 군수물자와 병력에 비해 러시아가 그 대가로 제공하는

물자나 기술 수준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은 관련 보고서⁵⁾에서 북한이 2023년부터 포탄, 로켓, 중화기, 병력 등 최대 98억 달러(약 13조5700억 원)로 추산되는 규모의 공급을 러시아로 제공했지만, 반면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한 식량, 에너지, 군수품의 가치는 최대 11억9000만 달러(약 1조6500억 원)로 10분의 1 수준에 그쳤다고 분석했다. 특히 러시아는 북한에 첨단 기술을 이전하는 데 극도로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 북한에 넘긴 물자는 대부분 하위급 무기 체계와 기본 생필품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차두현, 이동규(2025)⁶⁾ 역시 러시아로부터의 지원이 북한 입장에서 충분하지 않았을 가능성과 이로 인한 양국 간 신경전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2023년부터 양국 간 협력이 본격화되었지만, 러시아는 2024년 북한의 대외 무역 상대국 10위권 내에 진입하지 못했으며, 러시아의 지원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있어서도 2023년 11월 '만리경 1호' 발사 성공 이후 2025년 5월 추가 발사는 성공하지 못했고 그 이후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 러시아가 북한의 기대만큼 충분한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올 5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의 전승절 행사에 김정은이 불참한 것 역시 양국 간 미묘한 신경전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해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 사상자에 대한 영웅화 작업이 필요한 북한에게 러시아 전승절 행사는 이를 포장하기 위한 최적의 시기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은 이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북한의 전상자에 대한 예우 및 영웅화 역시 금년 8월 말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향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에 따라 북러 간 미묘한 신경전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경우 북한이 요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인 정황이 관찰된다. 성기영 외(2025)⁷⁾는 이번 전승절 이후 진행된 양국간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북한의 기대만큼 호응하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일례로 북한의 경우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확대하고 무역 불균형 해소 약속을 얻어내 외화

5) Olena Guseinova (2025), 「UNEQUAL PARTNERSHIP : North Korea's Uneven Bargain with Russia」, Friedrich Naumann Foundation for Freedom Korea (2025 September).

6) 차두현, 이동규 (2025), 「김정은의 중국 전승절 참석과 향후 북-중-러 관계 전망」,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No.2025-28, p.3.

7) 성기영 외 (2025), 「김정은의 중국 전승절 외교 : 주요 쟁점별 평가 및 전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 이슈브리프 729호 (2025. 9. 9).

3) 최용환, 이기동 (2023), 「북한 '신냉전' 구조 활용구상에 대한 평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INSS전략보고 no.233 (September 2023).

4) 이기동 (2025), “절망과 난망의 남북관계, 그리고 실낱같은 희망 찾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한반도평화포럼 공동 학술회의 「당 창건 80돌을 맞은 북한, 그리고 남북관계」 자료집 (2025.10.15.), p. 47.

획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의사를 강하게 드러냈지만, 중국은 북한이 원하는 ‘양국 간 상호이익’을 강조하는 대신, “북한이 자국의 실정에 맞는 발전의 길을 걷는 것을 변함없이 지지할 것”이라고만 언급하는 데 그쳤다. 중국이 북한의 경제 협력 확대 요청에 대해 기대만큼 호응하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또한 중국 측은 김정은이 이번 회담에서 “유엔 등 다자 플랫폼에서 조율을 강화해 쌍방의 공동·근본 이익을 수호하기를” 원했다고 보도했지만, 북한 측 보도에서 유엔 언급은 발견되지 않았다. 북한이 중국을 향해 ‘벌크 캐시’ 대북 송금 금지, 노동자 송출 제한 등 대북 제재 이행 중단을 요구했으나 중국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짐작케하는 부분이라는 평가이다. 이와 함께 한반도 문제에 관하여도 중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을 견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최대한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시진핑의 발언을 공개했다. 비록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서 ‘객관적인’ 입장을 강조한 것은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핵보유국 인정 불가, ‘적대적 두 국가론’ 수용 불가, 군사도발 자제 등의 메시지를 동시에 보낸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3국의 이해관계의 차이는 북한이 강조해왔던 신냉전 대립 구도에 관한 입장에서도 나타난다. 중국은 서방세계와의 교류가 중요한 위치인 만큼 신냉전에 비판적인 입장이며 “책임있는 대국”으로서 평양과 모스크바를 군사적으로 지원한다는 인상을 회피하고자 한다. 러시아 역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기점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대립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보다는 전략적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다보니 북·중·러 협력은 완전한 3자 연대의 형태로 움직이기보다는 북·러, 북·중, 중·러의 양자적 관계 위주로 선택적으로 연대하는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⁸⁾ 이번 전승절 행사에서도 북중, 북러 정상회담은 열렸지만 북중러 정상이 함께한 회담은 열리지 않았던 것도 이러한 3국의 협력이 직접적인 대미(對美) 대항 연대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⁹⁾

8) 차두현, 이동규 (2025), 앞의 글, p.8.

9) 위의 글, pp. 9-10.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반대정신이 필요한 때

강화되는 북중러 협력과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북한에 대응하여 한국은 어떤 행보를 취해야 할까?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분석과 대안들을 고민할 수 있겠지만 이 글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롬 12:21)”는 관점에서의 접근을 조심스럽게 제안해본다. 대립과 분쟁이라는 악(惡)한 구도를 강화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북한의 전략에 발맞추기보다는,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문제에 접근해보는 것이다. 북한에 의해 적대국으로 지목된 한국이 오히려 한반도의 대립과 긴장을 완화하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면 북한의 전략과 명분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더 나아가 근본적인 구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자라는 제안이다.

이와 함께 외교적으로는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가져가는 것이 북한이 바라는 신냉전 대립 구도를 약화시키는 전략이 될 것이다. 북한은 진영 간 대결 구도를 강조하지만, 중국이나 러시아의 입장은 북한과는 입장 차이가 있다.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한국을 적대국으로 간주하는 북한과는 달리 중국은 한국과의 경제적 협력의 필요성과 함께 한미일 간 군사 연대가 더 강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고, 러시아 역시 러우 전쟁이 마무리된다면 전쟁 이전 긍정적인 경제적 교류가 있었던 한국과의 관계 중요시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북한이 보이는 러시아 및 중국에 대한 의존을 미루어 볼 때 원활한 대북 정책을 위해서는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관리하는 일이 필요해 보인다. 미국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한국의 입장이기에 여전한 미중 갈등 속에서 외교적 고민이 깊지만, 적어도 한중, 한러 관계가 극단적으로 치달지 않도록 관리하는 지혜로운 움직임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현재의 북중러 협력은 결국 각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이해관계가 주요한 동력이 되고 있는 만큼, 견고한 한미 관계를 바탕에 두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대응이 단시일 내에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거나 정치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한 움직임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이 한국에 대해 험악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국제 정세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성하고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전략적인 판단을 바탕에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시일 내에 북한의 입장 변화나 외교적 성과를 바라고 조급한 마음에 북한의 심기를 자극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바라는 결과는 얻지 못한 채 오히려 북한에 끌려다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그보다는 북한이 바라는 적대적 관계와 대립이라는 폭력적인 구도에 대하여 선(善)으로 대응하는 장기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한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과의 교류 협력과 NGO의 대북 활동 등에 대한 적극적인 제안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함께 북한 인권 등과 관련된 활동도 꾸준히 지속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움직임은 국제 정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국내에서의 과도한 억압과 폭정 또한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활동이 정부 차원에서 볼 때 외교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한다면, 관련 영역에서 정부의 직접적인 활동은 자제하면서 민간 영역을 통한 투 트랙(two track)적 접근도 가능할 것이다.

선교 현장에의 시사점과 우리의 기도

한국과 타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는 선교적으로도 중요한 이슈이다. 물리적으로 북한 사람들과의 접촉이 대부분 중국과 러시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북한이 바라는 대로 진영간 대결구도가 심화되는 것은 해외 북한 선교 환경을 극도로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의 한중, 한러 관계의 향방에 특별히 주목해야 할 이유이다.

이와 함께 북한 선교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에 대한 고찰도 요구된다. 간단하게나마 도전과 기회의 요소들을 살펴보자면 먼저 도전적 요소로서 북한의 강경한 대남 적대시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생각해볼 수 있다. 북한 내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 내 기독교 박해 역시 더욱 극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대북 NGO나 교류 협력 사업 역시 당분간 전망이 어두워 보인다.

그렇지만 북중, 북러 밀착 관계가 오히려 선교의 지경을 넓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사이에 활발한 인적, 물적 왕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미 러시아와는 다수의 노동자를 파견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중국 역시 그간 소원한 분위기 속에서 중단되었던 중국 발 대북 관광의 재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그 외에도 인적, 물적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미 전승절 이후 북중 간 교역량이 급증하는 정황이 확인되고 있으며¹⁰⁾, 중국의 대북 관광이 내년 봄 재기될 가

능성이 언급되고 있다.¹¹⁾

이러한 생각들을 바탕으로 여러 도전과 기회를 마주할 북한 선교현장을 위해 몇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간략하게나마 제안해 보고자 한다.

먼저 한반도와 국제정세를 위해서는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적 대립이 잦아 들고, 평화의 진전이 있도록 기도하자. 특별히 의도적으로 긴장과 대립을 고조시키려는 북한의 전략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자. 또한 한국의 정책결정자들이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평화와 국익을 지키고 자신의 욕심과 이념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겸손함과 지혜를 구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선교현장을 위해서는 해외 북한 선교 현장이 복잡한 국가 간의 관계 속에서 과거 대량 추방사태와 같은 체류와 사역에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자. 일선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이 변화하는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 가운데서 무리하지 않고 안전하고 지혜롭게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자. 특히 다가오는 여러 가지 도전과 기회를 잘 인식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또한 어두워지는 남북 교류 협력의 전망 가운데서도 여러 기독교 NGO와 기독교 기업인 등이 북한으로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발굴하고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마지막으로 북한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자. 북한은 그동안 핵무기를 자신의 안전을 보장할 장치로 여기고 이를 개발 및 수호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이는 현 체제를 유지하는 데에는 얼마간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북한 주민들을 삶을 더 힘들게 만들고 국가의 발전을 제한하는 역효과를 불러 일으켰다. 최근 북한이 전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국제적 대립과 긴장을 강조하는 움직임 역시 당장은 북한의 국익에 부합하는 듯이 보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북한의 입지를 축소시킬 것이다.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를 자신의 든든한 뒷배경으로 삼았지만, 각자의 이해관계 속에서 국제정세는 얼마든지 급변할 수 있다. 북한이 억압과 대립, 폭력이 아닌 화해와 평화의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자. 핵무기와 주변 강대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정상국가로서의 변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

10) 김정은 방중 후 北·中 교역 폭발... '한 달 새 50% 넘게 급증', 문화일보 (2025.10.20.), <<https://www.munhwa.com/article/11540568>>

11) 내년 초 중국인 단체관광 재개?...김정은 "관광은 대외 개방의 창", 데일리NK (2025.10.24.), <<https://www.dailynk.com/20251024-1/>>

중국 전승절 및 당창건 80주년 기념행사 합의와 향후 행보 전망

임을출 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25년 9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전승절 행사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텐안먼 망루에 서며 북·중·러 3각 연대의 상징적 장면을 연출한 것은 북한의 외교적 위상을 제고하고 국제적 고립 이미지를 탈피하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다. 이 행보는 2025년 10월 10일 평양에서 성대히 치러진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행사로 이어지며, 중국·러시아를 비롯한 베트남, 라오스 등 11개국 고위 외빈의 방북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 공개를 통해 내부 결속과 군사적 자신감을 동시에 과시했다. 이러한 일련의 외교 및 군사 행보는 북한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반미 연대를 공고히 하며, 국방력 과시를 통해 체제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다층적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1. 김정은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과 자신감 배가

2025년 9월, 김정은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며 집권 후 처음으로 다자외교 무대에 데뷔한 것은 북한에 상당한 외교적·전략적 실익을 가져다준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은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함께 텐안먼 망루에 올라 세를 과시하며 나란히 걷는 장면은 미국에 대항하는 북·

중·러 3각 결속을 상징적으로 부각시켰다. 이는 북한의 대외적 위상을 제고하고, 내부적으로 김정은의 지도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구체적인 실익을 살펴보자.

우선, 이번 참석은 북중 관계 복원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밀착으로 다소 소원해졌던 북중 관계가 중국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급격히 회복된 것이다. 김정은

의 방중은 2024년 2월 박명호 외무성 부상의 중국대사 회담, 3월 북한 외무성의 북중 친선 관계 강조 발언으로 이어진 일련의 외교적 노력의 정점이었다. 중국은 북한을 전승절 행사에서 특별히 대우하며, 시진핑 주석과의 공식 회담 및 양국 간 '혈맹' 관계를 재확인하는 무대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북한은 중국과의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으며,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적 압박을 완화할 수 있는 외교적 여지를 확보한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둘째, 김정은의 다자외교 데뷔는 북한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과거 주로 양자외교에 치중했던 북한은 이번 행사를 통해 다자외교 무대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특히, 국제사회가 실시간으로 주목한 전승절 행사에서 주요 강대국 정상들과 동등한 위치에 선 김정은의 모습은 북한이 단순한 '고립 국가'가 아니라 반미 연대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향후 국제 무대에서 북한의 협상력과 발언권을 높이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이번 행사는 북중, 북러 관계의 강화와 균형을 맞추는 데 기여했다. 북한은 2024년 4월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공식화하며 '혈맹' 수준의 밀착을 과시했으나, 이는 북중 관계의 상대적 소원함을 초래했다.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함으로써 러시아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완화하고, 중·러 양국과의 균형 잡힌 연대를 구축했다. 이는 북한이 미국 및 한미일 동맹에 대항하는 외교적 레버리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러시아로부터의 군사 및 경제적 반대급부와 중국과의 협력 복원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북한은 대북제재 하에서도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넷째, 내부적으로 이번 행사는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과 민심 결속에 긍정적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대회가 10월 9일 밤 평양 능라도 5월1일경기장에서 열렸다. 오른쪽부터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 안보회의 부의장 겸 통합러시아당 의장, 또 량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김 위원장,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

인 영향을 미쳤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총비서가 세계 강대국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받은 각별한 대우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체제의 정당성과 국제적 위상을 강조했다. 이는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자력갱생' 노선을 내세우며 경제 성과를 과시하는 북한의 국내 선전 전략과 맞물려 민심을 다지는 데 활용되었다. 또한, 당 창건 80주년 및 9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상징적 계기로 작용했다.

요컨대, 김정은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은 북중 관계 복원, 다자외교 무대에서의 입지 강화, 북러 동맹 관계 재확인, 그리고 내부 체제 결속이라는 다층적 실익을 가져왔다. 이는 북한이 2026년 9차 노동당 대회에서 새로운 대외 전략을 발표하기에 앞서 국제적 협상력을 높이고, 반미 연대를 공고히 하며, 대내외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김정은은 첫 다자외교 무대 경험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 강화가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보여진다.

2.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 및 열병식의 함의

김정은은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을 통해 배가된 자신감을 바탕으로 10월 10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행사와 열병식을 통해 더 다층적인 실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자신감을 토대로 평양에서의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는 단순한 국내 축제가 아닌,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과 군사적 우위를 대내외에 과시하는 무대로 활용되었다. 특히 군사 퍼레이드에서 새롭게 공개된 화성-20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최신 무기 체계를 선보임으로써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진보를 과시하면서 미국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는 실익을 거두었다. 행사에는 중국 총리, 러시아 및 베트남 고위 사절단이 참석하여 북중러 연대의 연장선상을 확인했으며, 이는 중국 전승절 참석의 후속 효과로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완화하고 우호국과의 협력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했다. 김정은은 기념 연설에서 노동당의 80년 역사를 '실수 없는 완벽한 역사'로 규정하며, 군대를 '무적의 전투력'으로 강화하고 '가장 부유하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낙원'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내부 민심 결속과 체제 충성도를 제고하는 국내적 실익을 확보했다. 또한, 행사 전날 열린 대규모 축하 행사와 불꽃놀이, 게임 등은 인민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자력갱생' 노선을 강조하는 선전 효과를 발휘했으며, 이는 대북제재 하에서도 경제 성과를 과시하는 데 활용되었다. 중국 전승절 참석으로 얻

은 다자외교 경험은 80주년 행사에서 외국 사절 초청과 국제적 주목을 유도하는 데 직접적으로 반영되었다

북한이 2025년 10월 10일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개최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야간 열병식은 김정은의 지도 아래 북한의 군사력 현대화와 핵 억지력 강화를 상징적으로 과시하며, 대미 강경 노선과 반미 연대의 전략적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행사는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재확인하는 정치·군사적 의미를 더했다. 군사적으로 가장 주목할 점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의 공개로, 이는 고체연료를 사용한 최신 ICBM으로 북한 매체에서 '가장 강력한 핵 전략 무기 시스템'으로 칭송되며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화성-20형은 아직 시험 발사되지 않았으나 다탄두 탑재 가능성을 시사하며, 고체연료 특성상 발사 준비 시간이 짧아 선제공격 능력과 기동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기술적 진보를 나타낸다. 이 미사일의 등장은 북한의 ICBM 시리즈 발전의 연장선상에서, 기존 화성-18형을 개량한 형태로 추정되며,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초음속 활공 비행체와 결합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서방에 대한 전략적 위협을 증대시킨다.

또한, 열병식에서는 초음속 탄도미사일, 군사 드론, 현대 전자전 장비를 탑재한 탱크, 신형 전략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초음속 순항미사일 등 다양한 신무기가 대거 공개되었으며, 이는 '국방발전-2025' 무장장비 전시회와 연계되어 북한의 군사 기술 자립과 다층적 핵 전달 수단 확보를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무기 공개는 북한의 핵 억지력 강화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김정은이 기념 연설에서 '무적의 전투력'을 강조하며 군대를 최강의 핵 보유군으로 육성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확인시켜주고 있다. 또한 열병식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 장병들의 참가를 통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과시하며,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의 병력과 포탄, 로켓, 미사일을 공급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전 능력을 입증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는 북한의 군사력이 단순한 과시가 아닌 실제 전투 경험을 통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러시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된 최신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


아로부터의 군사 기술 이전과 경제적 반대급부를 통해 북한의 무기 개발 속도를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의 고위급 참석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묵인적 지지를 상징하며, 최근 중국이 대북 성명에서 '비핵화' 언급을 생략한 점과 맞물려 반미 연대의 군사적 축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 이 열병식의 군사적 의미는 북한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대미 협상에서 핵 보유를 전제로 한 '평화 공존'을 주장하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되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대응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가능성을 예고한다. 결국, 80주년 행사는 북한의 군사 현대화가 국제 제재 속에서도 진척되고 있음을 증명하며, 다극화된 세계 질서에서 북한의 전략적 위상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북한의 향후 행보 전망

김정은의 중국 전승절 참석, 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과 관련 행사는 김정은의 지도력 아래 내부 결속을 다지며 군사적, 외교적 위상을 과시하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조만간 개최될 제9차 노동당 대회에서의 새로운 비전과 노선, 계획을 수립하고 제시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당창건 80주년 기념 행사에 중국 리창 총리,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베트남 또 럽 공산당 서기장, 라오스 통룬 시술릿 국가주석 등 11개국 고위 외빈의 대거 방북 성과는 북한이 다극화된 국제질서 구축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예고한다. 이는 김정은은 옛새 동안 5차례 공개 연설을 통해 "국제적 권위 강화"와 "권위적인 정치적 역량 확장"을 강조한 맥락을 통해서도 재확인된다. 특히, 베트남과 라오스 등 동남아 우방국과의 관계 복원은 중국·러시아 중심의 반미 연대를 보완하며 다각적 외교 무대를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불확실한 북미 관계 속에서 북한이 협상 레버리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내부적으로는 당 창건 80주년 행사가 민생과 군심 결속의 정점으로 기능하며, 향후 김정은의 '인민대중제일주의'와 '자력갱생' 노선을 더욱 구체화한 정책 추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평양종합병원 준공식과 '국방발전-2025' 무기 전시회, 당 창건 사적관 참관 등 연계 행사를 통해 강조된 보건·경제·국방 분

야 성과는 대북제재 하에서도 지방발전 20×10 정책과 보건혁명의 원년 추진을 지속하며 민심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21년 제8차 당 대회에서 수립한 5개년 계획 마무리와 새로운 계획 수립을 앞둔 시점에서 체제 충성도와 동원력을 높이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다. 김정은이 연설에서 강조한 '부유한 사회주의 낙원' 건설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김정은의 연설에서 반복된 "무적의 전투력" 강조는 군사 분야에서 핵·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하는 신호로, 열병식에서 공개된 신형 ICBM '화성-20형'의 고체연료 엔진과 다탄두 탑재 가능성을 바탕으로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한 후에도 초음속 미사일, SLBM, 군사 드론 등 다층적 핵 전달 수단 개발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경험과 러시아로부터의 기술 이전 반대급부를 통해 향상된 실전 능력을 토대로 핵무력과 함께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북미관계, 남북관계는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김정은의 발언과 자신감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도 전략적 관망이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북·중·러 지도자의 천안문 망루 회동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양운철 (세종연구소)

북한-중국-러시아 지도자의 세력 과시

1954년 10월 1일 신중국 건국 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당시 북·중·러 지도자였던 후르시초프, 모택동, 김일성은 처음으로 회동했다. 1959년 신중국 건국 1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3인은 다시 회동했다. 이후 무려 66년이 지난 2025년 9월 3일, 북·중·러의 새로운 지도자인 푸틴, 시진핑, 김정은 3인은 천안문 광장의 열병식에서 만나게 되었다. 북·중·러 3국 정상이 연단에 동시 등장한 모습은 연대를 강조하는 파격적 연출이었다. 서방 국가들의 많은 지도자는 기념식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반면 러시아와 북한의 지도자는 중국과의 연대를 보여주었다.

이날 시진핑 주석은 연설에서 “인류는 평화냐 전쟁이냐, 대화냐 대립이냐, 공영이냐 제로섬이냐의 선택 앞에 있다”고 언급했다. 이 메시지는 중국이 ‘평화적 발전’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강한 군사력과 연계된 외교적 영향력을 주장하는 잘 기획된 담론이었다. 중국은 단순히 경제 대국이 아니라 외교·군사·이념을 아우르는 글로벌 행위자로 자리매김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연설이었다. 시진핑은 연설을 통해, 중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주도적으로 행사를 주도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푸틴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김정은은 참가 자체로 주목을 받았다.

과거 열병식이 열렸던 1959년과 2025년은 차이는, 1959년은 참여한 냉전 시대였지만, 2025년은 북·중·러 3국이 대립을 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협력도 하는 예전보다는 정치적으로 개선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북한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무조건적 지원 태도가 미중 패권 경쟁이 시작되면서 상황에 따라 변화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을 개발했고, 그 대가로 미국과 UN의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게 되었다. 북한 핵 개발 초기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북한에 핵 개발 포기를 설득하고 압박도 가했지만, 북한의 핵 개발 집념을 꺾을 수는 없었다. 당시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경제, 군사 부문에서 패권을 다투고 있었지만, 국제사회의 공의에서 벗어나는 북한의 핵 개발을 용인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고 동맹국인 북한을 강하게 압박할 수도 없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에 대해 경제적으로 압박도 해보았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 다양한 방법으로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하려 했지만, 핵 개발에 생사를 걸고 있는 북한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은 경제 강국으로 부상했고, 미중 패권 경쟁이 시작되었다. 중국은 계속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을 통해 북한의 핵 포기를 설득했지만, 역시 핵 개발을 향한 북한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북한 핵 개발에 대한 중국의 직접적인 압박은 점차 감소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중국은 국제사회의 강화되는 대북 압박과 경제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은 미국의 북한에 대한 불신과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난을 받는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이는 미국을 견제하는 정책이었다.

천안문 망루 회동의 정치외교적 의미

지난 9월 3일 신중국 건국 1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만난 북·중·러 3국 지도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의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천안문 망루에서 분명한 북·중·러 삼각 동맹의 이미지를 창출하였다. 중국의 시진핑은 세계



〈1959년 10월 1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건국 10주년 열병식에 참석한 김일성 북한 주석과 저우언라이 중국 국무원 총리〉



〈중국이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동평(DF)-5C. 해당 미사일은 사거리 2만km 이상으로 지구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질서에서 주도적 역할을 내세우는 이미지를 창출했고, 러시아의 푸틴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실추된 이미지를 중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로 만회하려 한 듯하다. 북한은 국제적으로 추락한 김정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참가하였다. 결과적으로 북·중·러 3국의 지도자는 함께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대응하는 사회주의 연대를 과시하였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의 베이징 방문을 “조선의 위상 재확립”, “대제국들과의 대등한 회담” 등으로 선전했지만,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실패한 북한이 보여주는 내부용 정치 선전에 불과할 뿐이었다.

이날의 열병식은 중국이 군사 강국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과시한 자리였다. 중국은 자국의 최신 무기인 극초음속 미사일, 수중 드론 등을 공개했다. 북·중·러 3국 정상의 회동과 대규모 군사 행진은 미국 및 서방에 대한 강력한 전략적 메시지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 중국의 군사 행진은 ‘우리도 힘이 있다’는 과시이며, 연단의 세 국가 정상은 향후 어떤 군사적 협력도 가능하다는 암시를 주고 있다. 확대해석하면, 3국 지도자의 연대는 동아시아 미군과 미동맹국에 대한 압박요소로도 작용할 수 있다.

정치 군사적 사안과 달리, 북·중·러 3국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협력은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3국의 에너지와 자원협력 강화 가능성을 들 수 있지만,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북한에 대한 지원과 경제협력은 상당한 인내와 준비가 필요하다. 3자 회동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의 에너지 협력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의 수요 증가에 따라, 러시아의 원유 및 가스 수출이 확대된다면, 북한도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하거나 일부는 무상으로 지원을 얻게 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북·중·러 정상회담의 한계

북·중·러 지도자들의 회동에도 불구하고 3자 회담은 성사되지 않았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즉, 중국과 러시아는 다른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안정적 국제질서 속에서 책임 있는 강대국 이미지를 유지하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

쟁 이후 서방과의 대립을 강화하며 체제 대결 구도를 선호한다. 반면, 북한은 김정은 체제 생존이 최우선 목표이다.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강대국이 추구하는 글로벌 전략에는 관심도 없고 수행할 능력도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로 북·중·러 3자 회동에 따른 외교적 부담이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국가를 배제한 회담은 처음에는 주목을 받았지만, 3자 회동이 자주 열릴수록 반미, 반서방 이미지만 강화될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할수록 국가의 권위와 이미지는 하락하게 된다. 러시아나 북한과 달리 중국은 서방 세계와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동시에 경제성장과 국가발전도 달성했다. 중국으로서는 지나친 반미나 반서방 태도는 지속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과의 협력에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UN 주도의 경제제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북한과의 공식 고위급 협력은 제재 위반 논란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이 경우, 중국은 공개 회동보다는 비공식·실무 수준의 교류를 선호하게 된다.

세 번째 이유로 북·중·러 3국의 미국 관련 이슈는 국가별로 다르므로, 3국이 공통으로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현안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북·중·러 3자 협의의 우선순위는 낮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북한은 핵을 포함한 안보와 군사 분야에 관한 관심이 높고, 중국은 미·중 경쟁의 완화, 러시아는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주 관심이 있어, 3국의 대미 협상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3자 회동은 이견 조율과 공통 주제에 집중하기가 어렵다. 북·중·러 3자 회동은 서방을 견제하는 상징적 이벤트로는 유용하겠지만, 각국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이해관계를 다루는 정상급 회동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중·러 3국 회담과 관련하여 북한의 매체들은 김정은의 베이징 방문을 “조선의 위상 재확립”, “대제국들과의 대등한 회담” 등으로 선전하고 있다. 특히 북·중·러 3자 회동을 통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 강력한 연대를 과시했다. 북한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반서방 연대의 일원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통해 경제적 이득도 확보했다. 2024~2025년 러시아의 전쟁 물자 부족 상황에서, 포탄과 로켓을 공급했고, 그 대가로 석유, 곡물 등을 얻었다. 이에 대한 답례로, 김정은은 천안문 회동에서 푸틴에게 전방위적 지원 의사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면서, 양국의 군사 동맹 위상을 높였다.

북한은 이번 베이징 회동을 통해 서방을 견제하는 연대 속에서 전략적 위상을 강화하려고 한다. 그러나 북·중·러의 연대는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며, 이


해관계가 상충할 경우 언제든 이완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이 북·중·러 3국 협력을 통해 새로운 경제안보 블록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 미국의 Lowy Institute는 향후 북·중·러 3국이 군사·외교 협력을 강화하고, 인프라 건설, 물자 운송, 자원개발 등을 포함한 새로운 경제협력의 장을 구축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만약 이런 구상이 장기적으로 실현된다면, 북·중·러 3국의 협력은 서방 중심의 경제 질서에 대한 강력한 경쟁모델로 등장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도를 고려할 때,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북·중·러 3국 간에는 제도적 연합체나 일원적 의사결정 구조가 없어 상징적 연대 이상의 수준으로 발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에 주는 함의

2025년 9월의 중국 전승절 60주년 기념식은 동북아시아 및 유라시아에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항하기 위한 북·중·러 3국의 외교, 군사, 경제 구조를 강화하려는 전략적 변화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대항하기 위한 북·중·러 3국 협력의 강화는 향후 한반도 안보 구도와 외교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중 협력과 북러 협력이 군사적인 면에서 큰 폭으로 발전한다면, 한미일 3국의 북한에 대한 정책도 상당히 강경하게 변화할 것이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도 질적으로 대폭 강화될 것이다. 관련하여, 중국의 군사력 강화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긴장을 증가시키게 된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압박도 증가하게 되어 동아시아의 안보 구도는 큰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현실에서 북·중·러 3국이 강력한 군사적 연합을 이루어 공세적 태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북·중·러 3국의 군사력 강화는 미국과의 관계 파탄과 정면 대결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동아시아에서의 군비 경쟁은 강화될 것이다. 이런 부담을 안고 북·중·러 3국이 군사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전망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분야는 극히 제한적이다. 비록 2024년 북한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달성했다고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생활 수준이 매우 열악하고, 산업의 발전 수준도 매우 낮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의 교역이나 경제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매우 제한적이다. 일례로 북한은 저임금 노동 인력이 부족한 중국과 러시아에 자국의 노동 인력을 파견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에 노동

자를 파견하는 것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97호 위반 사안이다. 따라서 북한이 서방 국가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것은 불법적이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장기적으로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와 함께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투자와 개발을 위한 경제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중·러 3국의 직접적인 경제협력의 강화보다는 미국, 한국, 서방의 자본을 끌어들이며 북한을 지원하거나 공동 개발하는데 더 큰 관심이 있다. 북·중·러 3국의 경제·군사적 협력 범위도 매우 제한적이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북한으로부터 군대와 탄약 등을 지원받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을 받고 있다. 중국은 경제제재를 준수하기 위해 북한과의 투자, 무역 등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북·중·러 3국의 정치적 연대는 상징성은 크지만, 이익 공유가 어려워 실질적 협력은 미약할 수밖에 없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 미국, 일본을 포함한 서방 세계와 함께 북한 개발을 위한 자원·물류·인프라 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관련된 국제협력이 진행된다면, 북한경제의 회생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 이에 따른 파급 효과로 동북아 공급망의 확장과 투자 유치, 물류가 개선되어, 주변 지역 경제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북한에 필요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부분적 지원이 아니라 한국, 미국, 일본을 포함한 서방 세계의 대규모 지원과 경제협력의 확장이다. 북한으로서는 외부 지원을 통한 경제발전이 체제 생존과 발전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다. 북한의 해외 자본 유치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핵 포기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오로지 북한이 선택할 문제이다. 

누가 2025 동북아 권력균형의 새로운 설계자인가?

강채연 교수 (국립통일교육원)

1. 들어가며

2025년, 국제정치 전문가의 시선에서 올해를 지배했던 세 개의 키워드를 뽑는다면, 단연코 전쟁(War), 관세(Tariff), 블록(Block)이다. 러우전쟁이든 중동전쟁이든 다시 확산되고 있는 냉전시대의 새로운 전쟁 공포는 냉전시기와 차원이 다른 현대전의 ‘기술 덕분’에 그 자체로 국가도 기업도 국민도 삼켜버린다. 트럼프의 오락가락 관세전쟁은 국제협약과 국제제도라는 질서 그 자체에 선전포고를 한 셈이다. 브릭스(BRICs)를 중심으로 부상한 위안화-달러 블록화에 이어 글로벌 기술체계까지 흔드는 기술 블록화까지,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한 세계를 살고 있지 않는가?

전 세계를 집어삼킨 이 세 개의 키워드는 사실 최근 동북아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복합적인 안보위기를 끊임없이 재촉했던 주역들이다. 그리고 그 게임의 중심에서 또 다른 작은 나라의 큰 게임이 진행 중이다.

2025년 동북아에서 가장 주목된 인물은 의외로 경제력 세계 100위권 밖의 작은 나라 지도자로, 김정은이 그 주인공이 아닐까 싶다. 핵무기라는 궁극의 카드를 손에 쥔 그는 미국, 중국, 러시아라는 거대한 삼각관계의 균형점에서 전략적 핵심 행위자(Pivotal Player)로 부상했다. 더 나아가 기존 질서의 수동적 수혜자에 그치지 않고 능동적인 현상변경주의자로서 동북아 권력 지형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야심을 과감하게 드러내고 있다.

김정은의 2025년 행보는 단순한 생존 전략을 넘어 대국의 지도자들마저

서로 끌어안아야 하는 위풍당당 스타 그 자체였다. 그는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반서방 헤게모니의 새로운 설계자로서 북중러 삼각 연대를 구축하고, 기존의 미국중심 질서에 정면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어쩌면 이는 1950년대의 마오쩌둥 이후로 동북아에서 그리 흔치 않는 독특한 리더십의 등장이며, 한반도에서 새로운 규모와 형태의 지정학적 도전을 예고한다.

2.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의 헤게모니 전략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의 헤게모니 전략은 러우전쟁 이후로 그 두각을 뚜렷이 나타내기 시작했다.

먼저 중국에 대한 김정은의 헤게모니 전략은 ‘전략적 자율성’이다. 김정은 체제는 전략적 자율성을 무기로 중국에 대한 전략적 압박을 대중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러시아 카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러우전쟁 이후로 최근까지도 북러 밀착과 북중 소외론은 엇치락뒤치락 끊임없이 공존했다. 이 속에서 시진핑과 김정은의 관계는 상호 무시하거나 무관심 하는 태도가 암묵적으로 감지되기도 했다. 그 사이에 김정은의 대외적 위상은 견잡을 수 없이 높아졌고, 급기야 8월 중국의 80주년 전승절 행사를 계기로 거의 주역에 가까운 김정은의 위치가 물망에 올랐다. 더 나아가 대국의 지도자를 향해 ‘북중 관계를 시대적 요구에 맞게 확대’할 것을 출선 요구할 만큼, 김정은의 북중 행보에서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 그 자체를 견인하는 듯한 기세마저 역력했다.¹⁾

김정은의 대중 전략에서 또 하나의 주목할 문제는 적절한 거리 유지다. 그는 중국의 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면서도, 중국식 개혁개방 모델을 강요받는 것은 철저히 거부한다. 이러한 배경에서는 과거 친중 개혁파로 주목됐던 자신의 고모부 장성택과 그의 처형으로 인한 트라우마도 무시하기 어렵다. 대신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권위’를 받아내려 한다. 앞서 탈냉전 이후로, 특정시점에서 반복되곤 했던 북중 냉온관계는 김정은 시대 대중전략에 있어서도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게 하는 ‘뼈아픈 추억’이다.²⁾

북러협력은 어떻게? 동일한 관점에서 볼 때, 러시아에 대한 김정은의 헤게

1) “김정은이 방중에 나선 이유 3가지…한국이 주목해야 할 신호는?,” 『BBC NEWS 코리아』, 2025년 8월 28일.

2) 강채연, “김정은시대 관광산업의 국제화전략과 협력의 선택적 이중구조,” 『한국동북아논총』 제25권 2호 (2020), pp. 101-125 참고.



모니는 ‘피로 맺은 동맹’이다. 특히 러우전쟁이라는 배경에서 김정은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단순한 편의적 동맹을 넘어선 ‘전략적 운명 공동체’로 승화시켰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이러한 변화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북한의 역사적인 열병식장에 러시아국기와 나란히 인공기가 행진하는 모습은

더욱 역설적이었다. 사실 러우전쟁에서 김정은의 대러 전략은 ‘기술·현금 대 혈맹’의 교환이었다. 북한은 인적 자원과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고, 일차적으로는 러시아로부터 핵심 군사기술 지원과 에너지/현금을, 이차적으로는 대북제재로 막혀있는 경제사회 분야의 대외 진출구를 원했다. 이중에서도 북러 조약이라는 장치를 통해 가속화된 핵전력 관련 기술협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북러조약을 전후로 가속화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기술이나 전략 핵잠수함 기술,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 등은 북한의 핵능력을 질적으로 도약시킨 게임체인저들이기 때문이다. 물론 러시아가 직접적인 기술 이전보다는 최소한의 군사자문 형태로 협력했을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아무튼 이 시기를 전후로 북한은 핵전략 무기체계들의 진입기술들을 신속하게 선보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러우전쟁, 특히 쿠르스크 전장은 북한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게임체인저 역할을 했다. 즉 현대전에 취약한 파병군인들의 희생을 넘어, 그 군인들의 무훈담과 전투력은 물론 포병 전술에 이르기까지 북한 군인들의 전투력과 전술적 명성을 주목하게 한 살아있는 현장이었기 때문이다.³⁾ 이렇게 러우전쟁을 배경으로 김정은의 자신감이 업사이클 되면서 그의 반미 헤게모니는 더욱 비상히, 그리고 빠르게 구축되고 있었다.

앞서 김정은의 공세적 행보는 바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시작으로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3년을 마감하면서, 돌연 한반도에 던져진 ‘적대적 두 국가론’은 단순한 대남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미국 주도의 한반도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자 한반도 현상변경에 대한 강력한 의지였다. 김정은은 ‘통일’이란 단어를 ‘평정’이란 군사적 용어로 대체하고, 미중 패권경쟁의 중심

3) “김정은, 우크라 ‘게임체인저’ 노린다...러시아 보낸 인물에 주목,” 『YTN뉴스』, 2024년 11월 1일,

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로 한국을 규정한 것을 넘어 집중 공략에 나선 것이다. 북한은 신냉전의 배경에서 핵무력을 통한 지역질서의 재편이라는 역사적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⁴⁾ 그리고 핵무력을 앞세운 공격적인 전략이 오히려 주변 우방국의 지지와 성원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전략적 계산도 지배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3. 북한의 ‘반서방 연대’설계도와 게임체인저

2025년 10월 9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기념하는 평양 열병식은 말 그대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전략적 무대이자 북한의 성공적인 외교 걸작품이었다. 김정은은 중국의 리창 총리와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등 중력의 제2인자들을 양옆에 거느리고, 미국 본토를 겨냥한 화성-20형 신형 ICBM을 과시했다. 이 이미지는 그 자체로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니라 새로운 국제질서의 참모습을 선언한 것이다.⁵⁾ 이 무대에서 김정은의 핵심 메시지는 명확했다. ‘(자신들의 행동이)패권을 반대하고 정의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진보적 인류의 공동 투쟁’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패권’은 미국을, ‘진보적 인류’는 반서방 연대를 의미한다. 그는 자신을 반서방 세계의 깃발을 든 혁명가로 포지셔닝하고 있었다. 중력의 최고위급 인사들 앞에서 벌어지는 그의 과감한 행보는 마치 ‘핵보유국 북한’에 대한 대국들의 공시적 묵인(共時的 默認)과도 같았다.

이처럼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대국들의 면전에서 반미연대, 반서방연대 전략을 밀어붙이는 파위는 역시 ‘핵보유국 북한’에서 나온다. 따라서 김정은에게 있어 핵무기는 단순한 억지 수단이 아닌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압박 수단이다. 최근에는 핵사용의 임계점을 운운하는 등 일련의 압박 전략을 통해 의도적으로 위기를 고조시키고 핵사용의 가능성을 꾸준히 강조함으로써 미국으로 하여금 먼저 양보하게 만들려고 한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 속에서는 북한의 이러한 전략과 전술을 두고, 1960년대의 ‘쿠바 미사일 사태’ 당시 흐루시초프가 사용했던 ‘벼랑 끝 전술’의 현대적 버전으로 조명하기도 했다.⁶⁾ 즉 김정은의 핵은 동북아에서 대국들과 대등한, 특히 미국과 대등한 핵

4) 실제로 김정은은 러우전쟁 이후의 국제질서를 신냉전과 다극체제로 진단하면서 ‘조성된 국면을 굳건강화의 더 없이 좋은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로동신문』, 2022년 9월 9일.

5) “북·중·러 중심 ‘반서방 연대’ 과시...‘북핵 용인’ 우려” 『KBS뉴스』, 2025년 10월 11일.

6) 이종주, “김정은의 핵 강압외교 연구,” 『현대북한연구』 제22권 3호(2019), pp. 88-130 참고.



〈올해 3월 8일 김정은의 조선소 현지 지도를 보도하며 공개된 건조중인 핵추진잠수함(SSBN)〉

역지력을 과시함으로써 한반도의 안보 질서를 재편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략적 계산에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 북한의 게임체인저 전략과 기술적 도약의 내부로 좀 더 들어가보자. 먼저 김정은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잠수함탄도 미사일(SLBM)과 핵잠수함문제를 보자. 김정은은 SLBM을 전략 핵무기 게임에 있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무엇이든(국내정치든 국

제정치든) 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궁극의 게임체인저로 인식하고 있다. 이 때문에 3000톤급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북한을 ‘진정한 핵강국 클럽’에 진입시킬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일찍부터 주목을 받았다.⁷⁾ 그리고 그 가능성은 불과 몇 년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현재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뿐이다. 북한이 여기에 합류한다면, 김정은은 세계 7번째 전략핵잠수함 보유국의 지도자가 된다. 김정은은 이러한 SLBM을 통해 미국과의 핵 대등성을 확보하려 한다. 지상 기반의 ICBM은 선제타격으로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바다 속 SLBM은 확실한 2차 타격 능력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가장 확실한 게임체인저의 1순위가 된다.

두 번째로, 최근 열병식에서 공개된 극초음속 미사일과 무인기전략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개발했다고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확실한 비대칭 우위 확보에 성공적인 수단이며, 이는 한국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결정적 무기로 개발하고 있다. 실제로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기동하며 궤도를 바꾸는 극초음속 미사일은 현재의 요격 시스템으로는 방어가 거의 불가능하다.⁸⁾ 더욱 주목할 것은 무인기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다. 북한은 러우 전쟁에서 입증된 현대전의 기술과 무인기의 파괴력을 매우 적극적으로 북한에 도입하고 있다.

김정은의 계산은 정확했다. 즉 한국과 미국이 첨단 요격 시스템에 수백억 달러를 투자하는 동안, 북한은 몇 십 분의 일 비용으로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공격 수단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7) “김정은의 ‘한 방’... SLBM 3000t급 잠수함 진정한 게임체인저 되나,” 『조선일보』, 2019년 4월 28일.

8) “한국 방공망 뚫는다, 극초음속 미사일 꺼낸 北,” 『조선일보』, 2025년 10월 13일.

4. 5강 체스게임과 북한의 전략적 포지셔닝

이처럼 최근 김정은은 핵무기를 앞세워 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 등 거대 세력들 사이에서 보다 강력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그리고 5강 체스게임에서 분명 승자이길 원한다. 그래서 필요한 나름대로의 몇 가지 이미지가 있다.

가장 첫 번째는 세계정상급 ‘체스 플레이어’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김정은을 시진핑, 푸틴, 에르도안과 함께 세계정상급의 체스 플레이어로 평가한 바 있다.⁹⁾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김정은의 전략적 역량에 대한 정확한 평가였다. 김정은은 실제로 집권 13년 만에 복합적인 전략 게임의 달인으로 성장했으며 북·미·중·러의 다자관계에서 나름대로 시계추 외교를 구사하고 있다.¹⁰⁾ 이러한 김정은의 체스 전략은 ‘약한 말을 강한 말로 만드는 기술’에 집중되어 있다. 한마디로 북한이라는 ‘폰(Pawn)’을 핵무기라는 ‘퀸(Queen)’으로 승격시키고, ‘상대방의 킹을 직접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체크메이트 위협을 가하는’ 고도의 전술로 대표된다. 특히 김정은은 동시 다발적인 게임, 즉 북중, 북러, 북미, 남북이라는 4개의 체스판에서 동시에 경기를 진행하면서 한 판의 승부가 다른 판의 전략에 영향을 미치도록 전략적으로 조율하고 있다.

둘째, 푸틴과 시진핑 사이의 균형자적 역할이다. 김정은은 푸틴과 시진핑 사이에서 킹 메이커(King Maker) 역할을 원한다. 그래서 더욱 위험하다. 실제로 김정은이 지난 중국의 전승절 행사에서 시진핑, 푸틴과 함께 세 독재자의 인상적 라인업을 연출한 것을 넘어 특이한 행위 패턴들(푸틴이나 시진핑과 달리 잦은 몸짓, 손짓, 스킨십 등)을 보인 것도, 사실은 대국의 두 지도자를 사이에 둔 중재자 포지션이다. 철저히 전략적으로 계산된 포지션인 것이다. 때로는 중력 간의 미묘한 경쟁 구도를 활용해 자신의 발언권을 극대화하기도 한다. 이를 통해 푸틴에게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파트너로, 시진핑에게는 러시아와의 균형 역할자로 자신을 포지셔닝한다.

셋째, 트럼프와의 피스메이커(peacemaker) 게임이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김정은과의 만남에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주문한 것을 넘어,

9) “트럼프, ‘김정은 등은 세계정상급 체스 플레이어’” 『연합뉴스TV』, 2022년 8월 18일.

10) 실제로 이미 2016-17년 사이에 6차 핵실험까지 향하는 노정에서, 김정은 정권은 핵보유국이라는 카드를 내세워 ‘전략적 요충지론’을 주장했고,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로는 동북아 지역이 강대국들의 새로운 경쟁무대가 됨에 따라 그 복합적인 전략게임에서 지렛대 역할을 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차태서, “핵보유국 북한과 살아가기: 탈단국 시대 한반도 문제의 전환과 대북정책 패러다임 변동,” 『국제관계연구』, 제28권 1호 (2023), p. 9.; 신중호 외, 『미중 전략경쟁과 한국의 대응: 역사적 사례와 시사점』 (서울: 통일연구원, 2021), pp. 380-419 참고.


트럼프-김정은 상호간의 '개인적 친분 과시'는 대화 재개의 가능성에 많은 희망을 갖게 한다. 사실 김정은은 하노이 노딜 이후의 학습 효과를 바탕으로 트럼프와의 재협상을 보다 공격적인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다. 단편적인 사례로, 2024년에 있었던 강선 우라늄농축시설 공개는 트럼프에게 보낸 일종의 초대장으로도 해석된다.¹¹⁾ 또한 최근에 있었던 최고인민회의에서도 트럼프와의 개인적 친분을 공개하면서 재협상의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했다.

넷째, 체스게임의 새로운 룰 메이커(rulemaker)다. 김정은은 단순히 기존 게임의 플레이어에 머물지 않고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는 주인공으로 부상했다. 그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통해 한반도 게임의 근본 전제를 뒤바꾸었고 핵보유국 지위의 기정사실화를 통해 동북아 안보 게임의 룰을 변경하고 있다. 특히 김정은은 '약소국의 강대국화'라는 새로운 게임 모델을 실천하고자 한다. 이는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닌 전략적 가치의 생산을 통해 국제정치 무대에서의 발언권을 확보하는 매우 도발적인 접근법으로, 기존 국제정치학에서의 세력균형 이론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는 행보다. 나아가 한반도의 복합적인 위기와 예측 불가능성을 넘어 기존 강대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뒤흔드는 매우 핵심적인 변수임에 틀림없다.

6. 결론

단언컨대, 김정은은 분명히 2025년 동북아 권력 균형의 새로운 설계자다. 그는 작은 나라의 지도자라는 인식을 넘어 초강대국들의 전략적 계산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고 있다. 그리고 핵무기라는 절대 무기를 바탕으로 '약소국의 강대국화'라는 전례 없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행보는 기존 국제정치 이론의 많은 가정들을 뒤흔든다. 경제력이 국력의 기초라는 전통적 사고, 핵확산은 억제될 수 있다는 비확산 체제의 근본 가정, 미국의 동맹 체계가 지역 안정을 보장한다는 믿음 등이 모두 도전받고 있다. 그리고 김정은은 푸틴, 시진핑, 트럼프, 이재명이라는 4명의 강력한 지도자들 사이에서 5번째 플레이어로 독특한 역할을 수행중이다. 그는 이들 각각과 개별적 관계를 맺으면서도 동시에 전체 게임의 균형점을 조율하고자 한다. 이 속에서 2026년 김정은의 최대 도전은 4개국 지도자들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실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성공 여부는 한반도뿐만 아니

라 동북아 전체의 안보 지형을 결정지을 수도 있다.

끝으로, 누가 2026년 동북아의 진정한 설계자가 될 것인가라는 핵심 질문 앞에서 다시금 생각해본다. 한반도 작금의 상황은 단순한 북한 문제를 넘어서 21세기 동북아, 그리고 국제질서의 미래를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김정은이라는 한 개인의 전략적 선택이 동북아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다는 현실은 이 시대의 가장 큰 역설이자 위험일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는 목마르게 필요한 핵심 이유가 되겠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지금 한국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응하는 '평화적 두 국가론'이라는 창의적인 실험을 준비중이다. 이는 김정은의 게임체인징 전략에 대한 한국만의 카운터 게임체인징이다. 북한이 '적대'를 강조하는 반면 한국은 '평화'를 강조함으로써 도덕적 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총회를 통해 END(Exchange, Normalization, Denuclearization) 이니셔티브도 발표했다. 이는 김정은의 핵 강압 전략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프레임워크다. '평화적 두 국가론'과 'END 이니셔티브'는 김정은의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대한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이다. 김정은이 '적대'와 '분열'의 카드를 사용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와 '공존'의 카드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남북관계의 실천적이고 도덕적인 미래 설계를 위한 첫 출발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11) "돌아온 트럼프에게 김정은이 보낸 초대장," 『시사IN』, 2024년 11월 29일.

복음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 인천한나라은혜교회 김권능 목사(중) -

편집부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광복의 그 날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동시에 그 기쁨을 제대로 누리기도 전에 분단의 아픔을 경험했던 우리의 가슴 아픈 역사를 생각합니다. 그러한 역사의 굴곡 가운데서 한반도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었던 북한 교회가 현재까지 겪고 있는 고초와 고난, 그리고 그럼에도 그 땅의 영혼들을 잊지 않으시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도 아울러 되새겨 봅니다.

북한개발소식에서는 탈북민 목회자로서 인천한나라은혜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김권능 목사님을 만나 그분의 신앙 여정과 북한을 향한 비전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간의 헤아림을 초월하시는 북한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나눔이 독자님의 마음에 북한에 대한 복음의 소망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가 자라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지면을 통해 해당 내용을 3회에 걸쳐 나눕니다.

3) 복송과 재탈북, 그리고 감옥 수감

귀한 청년들의 헌신과 순교가 저희에게도 큰 도전과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도 복송 등 고초를 많이 당하셨던 것으로 아는데요.

저는 통독반에서 잡히지 않은 사람들을 한국으로 보내고 저도 피신하려고 하다가 체포되어 복송되었습니다. 복송은 분명 큰 고초와 어려움이었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밀하게 저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제가 복송된 시기는 7월이었습니다. 덥고 습한 그 시기에 ‘햇빛쪼이기’라는 고문을 당했습니다. 죄수를 팬티만 입혀서 야외 기둥에 매달아놓고, 다른 죄수들에게 보이며 이들의 바깥 행적이나 죄상을 고발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밖에 2시간 넘게 매달려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매달린 자리가 좀 구석진 곳이었는데, 손을 결박한 수쇠가 녹이 슬고 잘 채워질 질 않아서 한 가운데 기둥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저는 부끄럽게도 ‘실내에서만 조사를 받으면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교우들 (사진=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홈페이지)>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적나라하게 저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게다가 제 앞에 앉아있는 죄수들 중에는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죠. 저를 고발하면 자신들의 공이 되니까요. 그런데 누구도 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신 제 곁을 지나치면서 혼잣말하듯이 “우리의 처지를 국제사회가 알아야 할텐데” 하고 읊조릴 뿐이었습니다. 제가 살아서 외부 세계에 북한의 상황을 알리길 바랐던 것이지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당시 통독반에서 말썽을 부리던 영철(가명)이라는 청년이 먼저 복송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통독반의 청년들을 많이 고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제가 햇빛쪼이기를 받기 전날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남아 있었다면 꿈쩍 없이 고발당했을 겁니다.

그렇게 혐의없음으로 풀려난 저는 이제는 진정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탈북해서 다른 탈북민들의 구출 사역을 돕다

가 6개월 만에 다시 붙잡혀 중국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기적처럼 위기를 모면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붙잡히셨네요

그렇지만 다시 잡혔을 때 한 편으로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산 자는 산 자로서 짊어진 무게가 있더라구요. 동료들의 고초와 순교를 생각할 때 항상 마음에 죄스러움이 있었거든요. 같이 공부하고 사역했던 분들 여럿이 순교했는데 저도 그런 각오로 해야겠다는 마음, 빛진 자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체포당했을 때 한 편으로는 평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중국 감옥에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 수감 되어 계셨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12년 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했는데 중간에 감형이 되어 10년을 복역했습니다. 수감생활이 끝나면 복송될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감옥생활은 생각보다 많이 힘들었어요. 시한

부 인생이라는, 미래가 없다는 생각이 저를 많이 괴롭혔어요. 그렇게 힘들어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이 결국 시한부라는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렇네요. 모든 사람이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 죽음의 때가 오니까요.

맞아요. 그때부터 삶의 의미를 오늘에 두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오늘 해야 할 바를 성실히 하자.’ 그래서 성경도 열심히 읽고, 중국어 공부도 했어요. 숨이 잘 쉬어지지 않는 듯한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이었죠.

4) 신앙의 방향 속에 깨달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수감 생활이 상당히 길었다 보니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신앙의 방향을 했던 시기가 있었죠. 같이 수감된 동료 탈북자가 있었는데 이분도 참 헌신된 분이셨어요. 이분은 4년 형을 받고 복역 중이었는데 하루는 저에게 복송되기 전에 죽을 방법을 묻는 겁니다. 갑자기 무슨 일인가 하여 이야기를 들어보니 북한에 있는 자기 자녀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런 말을 했더군요. 자신이 복송되어 죽는 것은 감수할 수 있는데 북한에 살고 앞으로 살아야 하는 자녀들은 반동의 자녀로 얼마나 고초를 당하겠느냐는 말이었어요. 북한의 사정을 아니까 어떤 걱정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었지요. 그렇지만 어찌 죽을 마음을 먹느냐고, 하나님께 살려달라 기도해야 하지 않겠냐고 다그쳤습니다. 그런데 얼

마 뒤 공교롭게도 그분이 복송을 당했어요. 아직 수감 기간도 남은 상황이었는데 말이에요. 그 사건에 저에게 참 낙담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은 꼭 살려주실 줄 알았거든요. ‘우리가 헌신했으면 자녀들은 책임져 주셔야 하지 않는가?’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를 데리고 가시더라도 그분은 꼭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었어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했지요. 그런 만큼 그분이 복송을 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에는 없는 것만 같은 절망감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신앙적으로 방향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든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방향을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지쳐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로 작은 위로의 손길을 보내주셨어요. 갑작스럽게 외부에서 편지를 받기도 하고, 상관없는 분들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깨닫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실패하고 도망하여 광야에서 40년이나 지낸 다음에야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동족들 구원해 주실 분이셨어요. 마치 저희가 북한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젊을 때,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을 때 나타나지 않으시고 40년이나 광야에서 양치기 생활을 한 다음에야 나타났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지요.

그래서인지 모세는 하나님께 그분의 이름을 여쭙습니다. 모세는 이미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 하

나님에 대하여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왜 떨기나무에서 나타나신 하나님께 그분의 이름을 물었을까요? 아마도 모세가 실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는 것만 같은 방향의 시간을 겪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북한에 이런 아픔과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일하지 않는가?’ 하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치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있는 자’, 즉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일을 그분의 때에 행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분이심을 깨닫게 된 것이 목사님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우리 생각보다 높으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간 편에서의 최선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닐 수 있습니다. 처음 남한에 와서 예배드릴 때 목사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대한민국 오셔서 환영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천

국 아닙니다. 탈북민들의 자살율이 일반 국민의 3배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분이 과장해서 말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가 북한 사람을 살리려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오고 싶어했던 남한에서 오히려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후에 한국 사회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살려낸 생명도 스스로 사라져 가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인간의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공산주의도 세상의 불행을 보면서 인간적으로 해결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거지만 더 많은 사람을 죽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방법과 계획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측면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권능 형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물으신다면 외부에서 기대하는 답은 아닐 수 있겠지만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통일도 우리가 더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에 열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따라 행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계속)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 목: 북한경제는
죽지 않았습니다만

저 자: 김영희 외

출판사: 도서출판 선인

발행일: 2025년 5월 2일

가 격: 21,000원



북한 주민들의 삶을 밀접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주요 분야로 흔히 경제가 꼽힌다. 특히 장마당 경제의 활성화가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그런 만큼 북한 경제의 변화상을 잘 이해하는 것은 북한 이해에 있어 필수적인 덕목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북한 경제는 세계 다른 어떤 국가의 경제 시스템과도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존의 상식으로는 작동 방식이나 변화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게다가 북한 경제가 어렵다는 소식이 자주 들려오다 보니 북한 경제는 이미 무너진 것 아닌가 하고 간단하게 판단하기 쉽다. 그렇지만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서도 ‘대책’을 만들어내는 주민들과, 일견 변화가 없는 듯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새로운 정책과 법률을 발표하며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북한 당국의 움직임을 생각해보면, 변화하는 북한 경제를 지속적으로 탐구하는 일은 북한에 관심을 두고 또 공부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지나칠 수 없는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오늘 소개할 책, “북한경제는 죽지 않았습니다만”은 북한경제가 역동적인 변

화를 겪고 있다고 강조하는 요즘 북한 경제에 관한 책이다. 이 책은 북한 경제 전반을 주요 영역별로 다루고 있는데, 각각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 북한 기업, 소비재 시장, 노동시장, 금융, 지방경제, 대북 제재 등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장점은 북한 경제가 김정은 시기 들어서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상당히 최근의 경향까지 분석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북한 기업 운영과 관련하여 북한이 새롭게 제정한 법률들과 그에 따른 변화라든지, 최근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금융 영역, 그리고 북한 경제를 이야기할 때 상대적으로 깊이 있게 살펴보기 어려운 지방경제에 대한 이야기 등은 저술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북한의 최근 경향을 잘 따라가고 분석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음을 느낄 수 있다.

북한 경제에 대한 미시적이고 구체적인 설명들이 많다는 점도 장점이다. 북한의 기업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노동시장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등 각 분야별 북한 경제의 작동 방식에 관하여 상당히 자세한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아무래도 우리와는 다른 경제 시스템을 가진 북한이다 보니 우리내 기업이나 시장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북한의 그것이 생소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느껴졌다. 또한 여러 저자들의 글을 모은 책이지만, 단순 논문 모음집이 아니라 저자들이 각각의 주제에 관하여 서술한 내용이 책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정리가 잘 된 느낌이다.

북한 경제에 관하여 기존에도 여러 서적들이 출간되어있지만, 다루는 영역이나 내용에서 최신의 경향을 반영하고 있고 디테일한 설명을 비교적 덜 딱딱한 문체로 표현한 책으로서 가치가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북한 경제를 더 깊이 있게 알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읽어볼만한 서적으로서 추천해본다. 📖

북, 당 창건 80주년 기념 행사 진행... 새 ICBM 화성-20형 첫 공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이 지난 10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노동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선보이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이 열렸다. 이번 당 창건 8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중국의 공식 서열 2위인 리창 국무원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러시아의 '2인자'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물론, 베트남 최고지도자인 또 럽 공산당 서기장이 방문했다. 이 외에도 라오스 니카라과·멕시코·적도기니·브라질·이란·베네수엘라·인도네시아 등 총 11개국 외빈이 방북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10월 7일에는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을, 9일에는 또 럽 베트남 서기장과 리창 총리, 10일엔 메드베데프 부의장을 접견

하면서 하루에 한 번꼴로 우방국을 챙기는 외교 행보를 진행했다.

또한 북한은 이번 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대거 공개하면서 미사일 능력과 국방기술력을 과시했다. 특히 이번 열병식 때 처음 공개된 화성-20형은 개량된 고체연료 엔진과 발사체를 장착한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다단위 ICBM 확보를 목적으로 개발 중인 미사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됐다.

화성-20형은 지금까지 시험발사가 이뤄진 적이 없기 때문에 개발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무기를 열병식에 등장시킨 것은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대미 압박 메시지를 발신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화성-20형 외에도 최근 평양에서 개최된 열린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2025'에서 전시했던 신형 미사일들을 열병식에 등장시켰다. 이 중 '화성-11마'라고 적힌 미사일은 극초음속 활공체(HGV) 형상의 탄두를 장착한 KN-23 계열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추정된다. (참고: 언론보도 종합)

北 “새 무기체계 극초음속 비행체 시험발사”... 김정은 참관 안해



통신은 '새로운 무기체계'라고만 했을 뿐 구체적인 미사일 기종이나 세부 제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극초음속 비행체'라고 언급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달 초 열병식에 등장했던 극초음속 활공체(HGV) 형상의 탄두를 장착한 KN-23 계열의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화성-11마'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험 발사를 참관한 박 부위원장은 “우리의 활동은 명백히 전쟁 억제력을 계속 고도화해 나가는 데 있으며 그 목적은 자체 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사일의 개발 목적이 '방어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북한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약 5개월 만에 재개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난 5월 8일 화성-11형 등 여러 종류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섞어서 발사한 이후 167일 만이었다. (참고: 연합뉴스, 10월 23일)

북한이 '새로운 무기체계'인 극초음속 미사일을 10월 22일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미사일총국 주도로 중요무기체계의 시험을 진행했으며 “평양시 역포구역에서 북동방향으로 발사된 2개의 극초음속비행체는 함경북도 어랑군 궤상봉등판의 목표점을 강타했다”고 10월 23일 보도했다.

이번 시험발사는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과 김정식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장창하 미사일총국장 참관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관하지 않았다.

위성사진으로 보니... “北 차량 늘고 유류 저장시설도 신축”

<사진 4> 도시 중심부 택시와 자가용 주차장 양상 추이



출처: Google Earth 위성 자료에 의해 기자 작성
[통일연구원 보고서 갈무리]

북한에 차량 운행이 증가하고 주요 항만 곳곳에 유류 저장시설이 신축되는 동향이 포착됐다.

정은이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10월 20일 발간한 ‘위성에서는 제재가 보이지 않는다’ 보고서에서 위성 자료, 현장 사진, 최근 방북한 중국 전문가의 발언을 토대로 이같이 평가했다.

함경북도 청진시 남향시장 일대를 촬영한 위성 사진을 보면 2019년 7월에는 한 공간이 공터인데, 2024년 4월에는 택시 30여대가 집결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개인이 기관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택시회사 차고지로 변모했다고 한다.

남포, 원산, 청진, 나선 등 주요 항만 인근에는 유류 저장시설이 신축되거나 기존 시설이 보수된 정황이 있었다. 남포의 유류창고는 2019년 19개에서 올해 6월 기준 36개로 증가했으며, 3개를

더 건설 중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항구에서 떨어진 남포역 바로 옆에 ‘내륙형’ 유류 창고가 신축되는 동향도 있었다.

정 위원은 “내륙형 유류 창고는 단순히 하역 기능을 넘어 평양 및 수도권 내륙의 산업지대로 연료를 옮기기 위한 중간 분배 및 비축 거점”이라며 “유류 수입량이 과거보다 늘어났거나 늘릴 계획이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중국에서는 차량과 부품, 생필품 등 소비재를 들여오고 러시아로부터는 에너지, 연료 등 전략물자를 조달하고 있다고 봤다. 특이한 중국 전문가는 “2024년 러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정제유가 남아돌아 중국 등 제3국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러시아로부터 워낙 많은 정제유가 들어와 북한이 소비 규모를 상회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 위원은 “중국, 러시아, 북한 간 분업 구조는 제재 회피와 자원 순환을 결합한 폐쇄형 지역경제망으로 진화해 북중러 삼각협력의 경제적 기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제재의 실효성을 점차 약화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재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북한과) 미래 협력의 기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전략적 유연성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0월 20일)

1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9월 3일 중국의 전승절 80주년 기념 행사에서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과시했던 북한은 10월 10일 북한 당 창건 80주년 기념 행사를 통해서도 북한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열병식에서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20형을 공개하는 등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북한은 대립적인 국제 정세 속에서 높아지는 자신의 전략적 가치를 활용하여 핵 보유와 경제 문제 해결 모두에 진전을 거두고자 하며, 이를 위해 남한을 적대국으로 타게팅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 상황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전략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기도합니다. 한반도가 북한이 말하는 대결의 장이 아닌 평화의 무대가 되도록, 그리하여 북한의 논리가 힘을 잃고 오히려 평화와 통일로로 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해외 북한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중러 3국의 협력 강화가 선교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한 편으로는 선교 현장의 위기를 불러올 위험과 함께 새로운 선교의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공존하는 상황입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 간 대결구도가 심화되지 않고 그로 인해 선교사들의 채류와 활동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북한과 주변국 간의 교류 확대가 더 많은 북한 출신 영혼들과의 접촉점이 확대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일선의 선교사님들과 현장 사역자들이 안전하게 주어진 상황에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3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급등한 북한의 환율과 물가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방의 매서운 추위가 벌써부터 주민들의 일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선교 현장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의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특히 지방의 소외지역의 상황이 어렵습니다. 당국의 잘못된 정책과 차별적인 자원 배분 속에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 특별히 빈곤층과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을 위해 기도합니다. 덧붙여 북한 주민들에게 육적인 필요와 함께 영적인 생명이 함께 공급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사역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4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님이 억류되신지 10년이 훌쩍 지나고 있고,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들도 억류된 채 생사나 소재조차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강제 복송된 탈북 신자들도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속히 중단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갇혀있거나 추방당한 성도들과 그 가족들의 생존과 신앙을 위해서, 억류되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 기도 제목

5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9월 4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채택 10주년을 맞아 현행화(업데이트)된 북한인권 포괄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북한 내 전반적인 인권 상황은 2014년 이후 개선되지 않았고 오히려 악화된 부분이 많다"고 종합 평가하였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운영이나 종교의 자유 제한, 여전한 성분에 따른 차별 및 납북 이산가족 상봉 중단 등이 여전한 가운데, 주민 생활을 억압하는 각종 사상 문화 통제법이 제정되고, 이를 근거로 사형과 공개처형이 이루어지면서 주민들의 생명권과 정보 접근권 및 표현의 자유가 더욱 심각하게 침해되었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을 향한 억압이 멈추어지고 주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체제 유지를 위한 통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진정한 '이민위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6 해외 북한 노동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24년 러시아로 입국한 북한 주민은 1만 3천명으로 전년 대비 12배로 폭증했습니다. 25년에는 그보다도 더 많은 북한 사람들이 노동자로 파견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으로의 노동자 파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 노무 기업이 북한 인력 알선을 선전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북한 밖을 경험하게 될 북한 노동자들이 바깥세상에 대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시야가 열리고, 더 나아가 복음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들을 향한 창의적인 선교의 기회가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북한 사람들과 접촉할 세계 각 지역 교회와 선교사들이 안전에 유의하는 가운데 지혜롭고 창의적인 방법으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7 선교현장의 기도제목으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악화하는 제삼국 북한선교현장의 선교 환경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 5월 1일부터 외국인의 종교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미등록 가정교회와 관련한 처벌 사건들이 보고되는 등 중국의 종교활동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24년 초 탈북자 사역을 하던 백 모 선교사님을 체포하고 현재까지 구금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중반 선교 환경이 급격히 악화된 이후 수많은 선교사가 현장을 떠났고, 이는 아직까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생존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창의적인 방법을 개발하여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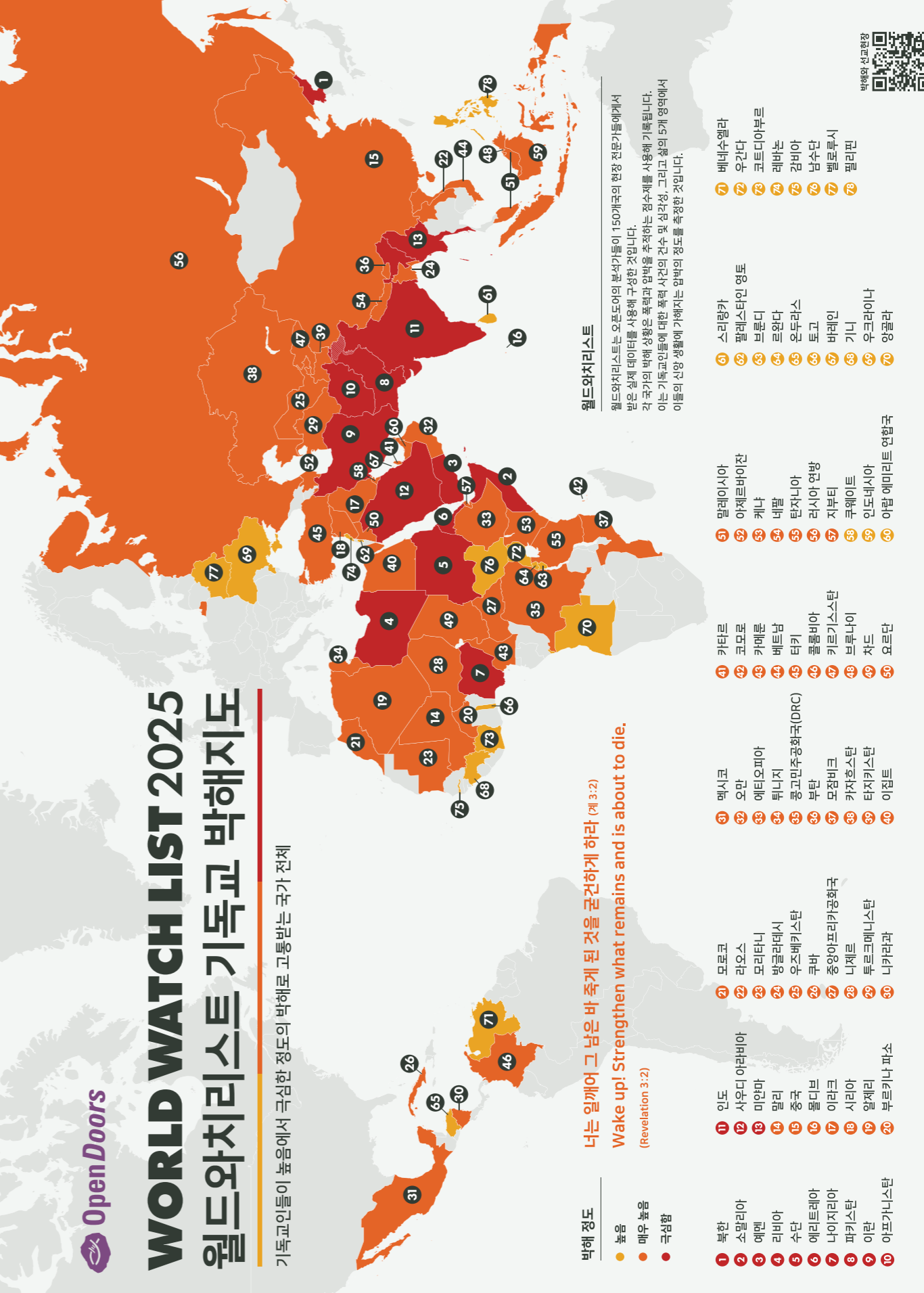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5년 10월 31일



WORLD WATCH LIST 2025

월드와치리스트 기독교 박해지도

기독교인들이 높음에서 극심한 정도의 박해로 고통받는 국가 전체



박해 정도

- 높음
- 매우 높음
- 극심함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계 3:2)
Wake up!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Revelation 3:2)

월드와치리스트

월드와치리스트는 오픈도어의 분석가들이 150개국의 현장 전문가들에게서 받은 실제 데이터를 사용해 구성한 것입니다. 각 국가의 박해 상황은 폭력과 압박을 추적하는 점수제를 사용해 기록됩니다. 이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폭력 사건의 간수 및 심각성, 그리고 삶의 5개 영역에서 이들의 신앙 생활에 가해지는 압박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도2 사우디 아라비아3 미얀마4 리비아5 수단6 에리트레아7 나이지리아8 파키스탄9 이란10 아프가니스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1 모로코12 라오스13 모리타니14 방글라데시15 중국16 몰디브17 이라크18 니제르19 투르크메니스탄20 니카라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 멕시코22 오만23 에티오피아24 튀니지25 콩고민주공화국(DRC)26 루만27 모잠비크28 카자흐스탄29 타지키스탄30 이집트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31 캄보디아32 아제르바이잔33 케냐34 네팔35 탄자니아36 러시아 연방37 지부티38 쿠웨이트39 인도네시아40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41 카타르42 코모로43 카메룬44 베트남45 터키46 콜롬비아47 키르기스스탄48 부르나이49 차드50 요르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51 말레이시아52 아제르바이잔53 케냐54 네팔55 탄자니아56 러시아 연방57 지부티58 쿠웨이트59 인도네시아60 아랍 에미리트 연합국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61 스페인62 프랑스63 브라질64 르완다65 온두라스66 도미니카67 바레인68 기니69 우크라이나70 앙골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71 베네수엘라72 우간다73 코트디부아르74 레바논75 감비아76 남수단77 벨로루시78 필리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79 베네수엘라80 우간다81 코트디부아르82 레바논83 감비아84 남수단85 벨로루시86 필리핀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문의: 02-596-3171 / 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Mission Bible College

선교사들이 개발한 'ABC성경대학'교재

- 셀프 성경 공부 교재
- 교회 소그룹 교재
- 교육 자료가 부족한 해외 선교 현장

본 교재는 국내 교회 및 해외 선교현장에서 성도들이 성경과 신학을 어렵지 않고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현장에서 수년간 사역한 선교사들이 선교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는 평신도, 각종 이단과 불건전한 신학의 홍수 속에서 성경으로 균형잡힌 성도들을 세우기 위한 교회, 평신도 리더를 길러내고자 하지만 교육자료가 부족한 선교현장에 적극 추천합니다.

ABC성경대학(Asia Mission Research Center - Bible College) 교재의 특징

1. 성도들이 복음의 기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리더로 도약하도록 돕습니다.
2. 개인 및 소그룹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본문마다 질문, 묵상, 적용에 중점을 두고 집필했습니다.
3. 성경 해석 참고 도서가 부족한 선교 현장에서 한 권의 책으로 본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했습니다.

AMRC 바이블 칼리지 교재는 기본과정, 성경연구과정, 성경신학과정, 일반신학과정 총 40개 과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어, 중국어, 네팔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로 번역하여 현지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중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은 CLC 출판사를 통해서 출간하였습니다.

※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은 알라딘, 교보문고, 예스24 등 온라인에서 판매중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CLC사도신경, CLC주기도문, CLC십계명을 검색해 보세요.)

